

‘결혼 안한다’... 광주 혼인건수 10년새 반토막

통계청, 2022년 혼인·이혼 통계

광주 4902건, 2012년 대비 43% ↓
광주·전남 조혼인율 3.4% 불과
전남, 외국인과 혼인 비중 10%

광주지역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광주·전남지역 모두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는 4902건으로 전년(4901건) 대비 고작 1건 늘어났다.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지난 2012년 8596건에서 지난해 43%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8년 6000건대로 줄어든 광주 혼인 건수는 2021년 4000명대를 기록하며 2년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6181건으로 전년(6201건) 대비 0.3% 줄어들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9827명에서 3646명이 줄어들며 37%가량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의 경우 지난해 광주와 전남 모두 3.4건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경북 다음으로 조혼

인율이 낮은 하위권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와 미혼 남녀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30세~34세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10년 전인 2012년 11만 6252명에서 8만5802명으로 26.1%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든 혼인 건수가 지난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1세로 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전남은 남자 33.9세, 여자 30.8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5세, 0.4세씩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년 대비 전

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는데, 광주의 경우 345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남은 627건으로 전년(398건) 대비 무려 57.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국내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10%를 넘어가며 충남, 전북,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혼인 건수와 함께 지난해 이혼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광주는 2360건으로 전년(2572건) 대비 8.2% 감소했으며 전남은 3565건으로 전년(3776건) 대비 5.6% 줄어들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광주 108건, 전남 202건으로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5.7%를 차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 봄 맞이 캐릭터존 새단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봄을 맞아 캐릭터존을 새단장 했다고 16일 밝혔

다. 본점 1층 로비에 위치한 캐릭터존은 광주은행 캐릭터 ‘웅이·달이·단지’ 대형인형이 전시된 공간으로 매 계절마다 계절의 변화와 분위기를 담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 ‘ADAC·아우토 빌트’서 기술력 입증

금호타이어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아데아체(ADAC)와 아우토 빌트(Auto Bild)가 실시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내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아데아체 테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ECSTA) HS 52’가 테스트 결과 8위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번 테스트는 아데아체 타이어 테스트 50주년을 기념해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글로벌 타이어 50개사의 대표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규격 205/55R 16) 성능 비교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평가항목은 마른 노면, 젖은 노면의 주행 만족도와 마일리지, 마모, 소음, 지속가능성 등 환경적 균형에 대한 평가 만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종합 8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엑스타 HS52’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감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세단 및 스포츠 차량에 모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곽지혜 기자

‘한국 경제 50년’ GDP 85.2배·수출 153배 늘었다

상공의 날 50주년 연구보고서

농어업·상사→IT·전자·금융
글로벌 시장 점유율 39위→7위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이 85.2배 상승하는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 준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의 경제 데이터를 모아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의 달라진 한국경제 위상을 분석했다.

지난 50년 동안 GDP 규모는 1974년

195억4000만 달러에서 2022년 1조6643억3000만 달러로 85.2배 상승했고, 1인당 GDP도 563.3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상승했다. 전 세계 GDP 순위도 30위에서 10위로 크게 올랐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통계청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데이터를 분석하면,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 초반(1971~1975년) 주력 산업은 농림어업(13.8%), 종합상사 등 도소매업(13.6%), 섬유(11.6%), 백색가전(4.2%) 등이었지만, 최근 5년(2017~2021년)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휴대폰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 등으로 바뀌었다.

1974년 당시 한국 수출 총액은 44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년 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어 4년 후인 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6년 후인 1987년에는 이 2배인 40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수출액은 6835억8000만 달러로, 50년 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했다. 한국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크게 올랐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다.

뉴스스

LH, 여수 서교에 ‘희망상가’ 공급

청년·소상공인 등에 장기 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여수시에 여수서교 희망상가 16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 상가로, 이번에 공

급되는 희망상가 16호는 여수시 서교동 153-4번지 여수서교 행복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상가는 근방 0.3km 이내 총 8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우수하고 근처 서시장이 위치해 상권이 발달돼 있다. 또 여수서교 행복주택(200호) 입주, 민간임대아파트(238세대)가 준공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년·사회적기업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I형 8호는 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인 공공지원 II형 3호는 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 일반형은 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형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곽지혜 기자

재테크 칼럼

시장의 바람을 읽는 풍향계 거시경제지표

투자자는 자산시장이라는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떠 있는 보잘 것 없는 뚝배기다. 바람에 파도라도 치면 흔들거리고 자칫 태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투자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를 들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돛을 바꿔야 한다. 때로는 거친 바람을 피해 피항도 하고 바람이 불 때는 돛을 힘껏 올리고 달려야 한다. 거대한 자산시장의 바다에서 항해도와 풍향계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지표

다. 거시경제지표는 수많은 종류가 날마다 발표 되고있다. 국가별로 발표가 되는데 그 많은 지표들을 모두 볼 필요는 없다. 주로 세계 경제의 지휘자인 미국의 경제지표를 보고 한국의 몇 개 경제지표도 참고하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발표다. 1년에 8번 발표된다.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발표도 같이 참고하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체크 한다. 다음으

로는 미국 국제 장단기 채권 금리차다. 주로 10년물과 2년물 채권 금리 차이를 보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내에 반드시 경기불황이 찾아온다.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미국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 실업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ISM서비스지수(PMI), ISM제조업지수 등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표(통계청)나 한국은행의 경상



수지도 참고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는 미연준의 금리와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대 축이다. 주의할 것은 각 지표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단순히 지표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보다는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의 경우 보통은

낮을수록 좋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거꾸로 오르는 것을 시장은 원한다. 또한 실업률의 상승을 시장이 원하는 때에 전월대비 이번 달의 실업률이 예상 기대치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에 따라라도 단기적인 영향력을 시장에 미친다.

변덕스러운 시장은 반드시 거시경제지표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은 불완전 하더라도 시장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인 것 만은 분명하다. 거시경제지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새 바다에 부는 바람을 관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